

■ 韓銀 2월중 국제수지 동향 집계해보니

서비스수지 25억불 적자 사상 최악

여행수지 적자규모가 줄었으나 특허권 사용료와 무역관련 서비스비용 대외지급이 늘면서 2월 서비스수지 적자가 월간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1월에 적자를 기록했던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로 큰 폭으로 증가한 데 힘입어 2월에는 4억9천만달러의 흑자로 돌아섰다.

하지만 증권투자로 배당을 받은 외국인의 대외송금이 집중되는 3월과 4월에는 소득수지에서 큰 폭의 적자가 예상돼 경상수지가 다시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중 국제수지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특허권 사용료 급증 탓...여행수지 적자 10억달러 넘어

상품수지 흑자 덕에 경상수지 한달만에 흑자로 반전

서비스수지는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인 25억5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최고치였던 작년 8월의 적자액 20억9천만달러보다 4억6천만달러 늘어난 것이다. 올해 1월의 19억4천만달러에 비해서는 6억1천만달러 증가한 규모다.

이처럼 서비스수지 적자규모가 급증한 것은 해외여행과 유학·연수경비

로 구성되는 여행수지 적자가 10억6천만달러로 전월보다 4억1천만달러 줄었지만 설연휴 요인으로 운수수지 흑자가 대폭 축소된 데다 특허권 사용료와 무역관련 서비스 지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운수수지는 1월 1억1천만달러의 흑자에서 2월에는 흑자규모가 1천만달러로 축소돼 간신히 적자를 면했다. 이처럼 운수수지 흑자가 급증한 것은 통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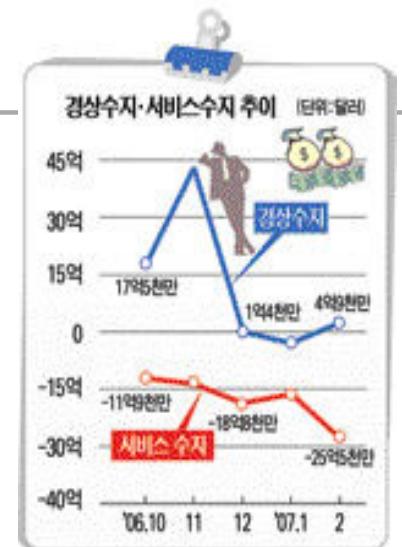
가 2월에 포함돼 영업일수가 줄어든 것 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특허권 사용료 수지에서는 1월 1억6천만달러에서 2월 4억1천만달러로 늘었고 무역관련 서비스수지 적자도 같은 기간 2억3천만달러에서 4억7천만달러로 악화됐다.

한은은 "특허권 사용료 지급은 2월에 집중되는 계절적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24억8천만달러로 1월의 11억9천만달러에 비해 12억9천만달러나 증가했다.

상품수지 흑자가 급증한 것은 통관 기준 수출입차 흑자폭이 확대된 데다



선박수출 통관·인도시점의 조정으로 흑자요인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밝혔다. 소득수지는 8억5천만달러의 흑자를 냈으며 경상이전수지는 2억8천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4억3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던 경상수지는 2월에 4억9천만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1~2월 누적 경상수지는 6천만달러의 흑자로 집계됐다. /장필수기자 bungy@kwanju.co.kr

돼지고기도 선물 거래

거래소 연내 상장 방침

금융외 상품 중 최초



삼성, 와이브로 서비스폰 출시

삼성전자는 4월부터 와이브로 서비스가 서울 전역 등으로 확대되는 것에 맞춰 와이브로와 CDMA(코드분할다중접속)가 결합된 '와이브로 스마트폰(SPH-M 8100)', 와이브로와 HSDPA가 결합된 USB형 무선데이터 모뎀 '와이브로 USB 동글(SPH-H1200)', 복합단말기 '디렉스 MITS(SPH-P9000)' 등 3종의 단말기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

을 하루기에는 돼지고기도 선물 거래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양돈 농가와 가공업자는 돼지고기 가격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축산발전협회와 축협조합 등 축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돈육 선물을 연내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선물 상품은 주식 등 금융 상품을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고 일반 상품 중에는 금 선물만 있으며 농축산물 중에는 돼지고기가 처음이 된다.

돈육 선물은 전국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기초로 대표 가격

학교급식 농산물 안전조사 대폭 강화

잔류농약·식중독균 검사

학교급식에 사용되거나 폐광 주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은 28일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의 큰 관심을 반영, 올해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체 정밀조사 분석 건수를 지난해 2만7천건에서 올해 4만건으로 45% 늘리고, 이를 위해 관련 예산 역시 100억 원에서 128억 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학교 납품 농산물에 대해서는 잔류농약 검사(600건)를 실시하고 체소류를 중심으로 대장균·살모넬라 등 식중

을 산출해 3천kg(35~40마리) 단위로 거래되며 거래 기간은 돼지의 통상 사육 기간인 6개월 단위다.

예컨대 양돈 농가는 돼지 가격 하락에 대비해 선물 매도를 하면 6개월 후에 가격이 떨어져도 예상했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생산 규모는 2005년 기준 3조 7천586억 원으로 전체 축산업 생산액의 31.9%를 차지하고 있으며 1만1천300여 농가가 돼지 938만마리를 기르고 있다.

돼지고기는 계절에 따라 수요 변화가 심하고 질병 등에 의한 폐사율이 약 14%로 높아 가격 변동성이 연간 36.2%에 이를 정도로 크다.

금감위 이명호 증권감독과장은 "양돈 농가는 돈육 선물을 이용해 가격 변동의 위험을 줄여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선물시장을 통해 가격을 전망해 출하량을 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모든 농산물에 유전자변형 표시

7월부터 확대 시행

위반 신고판 포상금

오는 7월부터 모든 농산물이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 대상에 포함되고 GMO 표시 위반사례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농림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2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콩·콩나물·옥수수·감자 등 4개인 GMO 표시 대상품목이 '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 토록 식약청장이 승인한 모든 농산물'로 확대된다. 또 GMO 표시제도에도 현재 원산지 표시 단속에 활용

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기준 및 방법도 보완됐다. 같은 품목이지만 원산지가 다른 농산물을 혼합하는 경우 원산지별 혼합비율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고, '지리적 표시'의 대상 품목도 기존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품목'에서 '모든 농산물 및 가공품'으로 늘어났다.

이율리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청구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하고,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및 이력추적관리의 유효 기간 연장 신청의 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줄였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오는 6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ju.co.kr

검사 불이행 자동차 번호판 압수

불법 자동차인 '대포차'가 올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자동차 검사명령 불이행시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하는 내용을 글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7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존 자동차 관리법에는 검사 불응시 과태료 30만원만 부과했지만 개정되는 시행규칙은 2차례의 검사 유보기간을 통지했음에도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때는 자동차 소유자를 검사하고 번호판까지 압수하는 등 징계수위가 높아진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검사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명하고, 이후 9일 이내에 검사를 명하고, 이후 9일 이내에 실행하지 않으면 자동차 운행 정지와 함께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할 수 있다.

정부가 이처럼 시행규칙을 마련한 이유는 정기검사를 오랫동안 받지 않을 경

우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의 주범인 대포차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포차는 법인·단체 등의 부도·파산 시 채권자나 법인관계자 등에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넘어가 운행되거나 차주들이 이를 이용해 대포차로 팔아넘기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유권 이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되는 불법자동차를 말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과태료 30만원만 부과해 자동차 검사 명령을 안지켜도 서류에 압류로만 등록될 뿐이며 차주의 소재조차 파악하기 힘들었다"면서 "일부 차주들이 이를 이용해 대포차로 팔아넘기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우리銀도 수수료 대폭 인하

우리은행은 시중은행 최초로 영업시간의 당행이체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최고 400원 인하해 시중은행 최저수준으로 낮췄다.

우리은행 개인마케팅팀 이광구 부장은 "고객과 함께하는 최고은행이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로 고객 사은권에서 수수료 면제와 인하를 정설했다"며 "고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동화기기와 모바일뱅킹 수수료 등을 최저수준으로 낮춰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올 취업 더 힘들겠네

기업 채용규모 작년보다 21% 줄 듯

올해 기업들의 채용인원 규모가 작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100인 이상 고용기업 709개를 대상으로 채용전망에 관해 조사한 결과 올해 채용 예상규모가 작년 실적 대비 21.4% 감소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28일 밝혔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비(非)제조업이 각각 24.4%, 16.8% 줄어들고,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17.2%, 32.4%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졸 이상 학력자에 대한 채용규모는 30.4% 감소하고, 고졸 이하 채용의 경우 10.4%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됨으로써 대졸 이상 학력 취업난이 상대적으로 심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졸 이상 채용과 관련해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33.2%, 비제조업이 26.1% 각각 감소하고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27.2%, 중소기업이 37.0%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졸 이하의 경우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각각 11.4%, 8.4% 줄어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6.5%, 27.0%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 위축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채용계획을 묻는 질문에 '있거나 이미 채용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46.8%였고, '현재까지 인력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한 기업은 22.3%, '채용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거나 유동적이다'는 기업은 30.9%였다. 이 가운데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작년에 비해 16.2% 포인트나 줄었다.

채용하지 않거나 규모를 줄이려는 기업들은 인건비 압박(23.7%), 정치·경제의 불확실성(23.4%), 가동률 저하(15.8%), 투자규모의 동결·축소(15.8%)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연합뉴스

직장인 "디지털기기 없인 못살아"

MP3플레이어 등 1인당 평균 3.5대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는 23~26일 직장인 1천316명에게 휴대전화나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등 휴대용 첨단 디지털기기 소유 여부를 물은 결과 1인당 평균 3.5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기(복수선택)는 휴대전화(95.8%), MP3플레이어(70.6%), 디지털카메라(68.5%), 전자사전(28.6%), DVD플레이어(23.2%), 네비게이션(22.3%), DMB단말기(16.8%), PMP(12.1%), PDA(6.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첨단기기들을 주로 언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출퇴근시'(25.8%)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시간을 보내야하거나 심심할 때'(22.0%), '취미생활을 즐길 때'(15.0%),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12.2%), '업무를 수행할 때'(10.1%)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디지털 기기를 구입·용도에는 들어가는 비용은 한달 평균 '5만~10만원'(29.6%), '1만~5만원'(27.0%), '1만원 미만'(12.8%), '10만~15만원'(12.5%), '15만~20만원'(9.1%) 등이 순위였다.

/연합뉴스

대출구직자 43% "학자금 대출 경험"

대출 구직자 10명 중 4명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www.saramin.co.kr)은 최근 대출 구직자 1천650명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조사대상자의 43.1%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평균 3학기 분의 학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를 중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다는 응답자는 28.2%였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유로는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 풍조 때문에'라는 대답이 60%로 가장 많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16.6%), '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려고'(12.9%) 등이 꼽혔다.